

# 한국적公害의始發(考)



朴 昌 根  
((社) 환경교육회 위원장)

**환** 경이란 인류가 살아 남을 수 있는 유일-절대한 조건이자 최후의 자원이다. 환경을 다만 유-무기체나 일반 사물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았다간 큰 일을 치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환경公害의 한 전시장이다. 칠십년대 이후로 말세적 충동 소비가 그 찌꺼기를 한 없이 쌓아 올리고 있는 죽은 덩저리이며, 자연을 크게 배신한 개발 정책의 주검이다. 이러한 맥줄에서 우리는 소위 한국적인 환경오염의 정체를 규명하고 긴급처방을 얻어내야 한다. 흔히 우리는公害의 터무니로서 폭발적인 인구증가, 급격한 산업확장, 도시집중화 등을 들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따위의 교과서적인 오염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병든 우리 환경의 꾸밈없는 전체 모습을 파악하기 어렵다. 보다 본질적인 오염원은 따로 있다. 후진국 백성다운 탐욕이 그것이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편리한 것, 더 쉬운 것 들을 다치는 대로 독차지하여 되도록 제맘대로 한껏 향락하고자 하는 무한의 소비욕이 그 주범인 것이다.

그 때가 칠십년대의 첫 무렵이었다. 오로지 고도-고속화의 경제성장만이 치열하게 선전되고 요란스러운 찬양을 받고 있었다. 또, 개발정책이라고 불려진 괴물이 미친 불도저처럼 온 나라를 마구잡이로 뜯어고치고 있었다. 정신은 소외되고 자연은 배반당하는 시절이었다. 오로지 다그치고 밀어붙이고 하는 성장-개발의 다이내믹

스에 압도되어 나라고 백성이고 모두가 외딴으로 떠밀려 가고 있었다.

기적의 경제성장을 나라의 목표로 하여 뒤도 안 돌아보고 내뺄는 大役事 앞에 그것이 가져올公害 문제쯤은 그야말로 문제라고 할 것까지도 없는 새밭의 피였다. 설혹 문제될 것이 있다하더라도 대수로울 것은 없었다. 정보의 문빛장을 빈틈없이 걸어 잠그고 있었으므로 언제나 진실은 너울속에 몸을 숨겼기 때문이다.公害의 실체는 짙은 안개 속에, 아니 권력의 지하실에 언급되어 있었다.公害쯤이야 경제성장의 상징이자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필요악이라고 서슴치 않고 내뺄거나 우겨대면 그만인 판료사회였고 기업풍토였다.

그러나, 환경오염의 실상은 그 때 이미, 알고 나면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골병이 들어 있었고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갔다. 그보다 더 위태로운 병리 현상은 오염은 있을지 모르지만 피해는 없다고 억지소리를 해대며 국민을 잘못 오도하고 있던 정부 관리들의 위대한 오류였을 것이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목청을 돋구어 부추기던 시절이었다. 본디 생각이 얇은 우리 백성들은 권력이 던져 주는 신기루 같은 미기에 너도 나도 달려들어 그 달콤함을 맛보자 속이 부풀대로 잔뜩 부풀어 올랐다.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큰 것, 더 편리한 것, 더 쉬운 것만을 좇아 허둥했다. 소비경제는 기승을 부렸다. 그것이 불

림없이 가져 올 환경의 오염 따위는 들 볼 겨를도 없이 공해를 무더기로 생산해내는 외길로 줄담음쳤다.

대량소비는 마땅히 대량생산을 이끌었다. 그리하여 대량의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토양 오염물 등을 우리 환경에 쏟아 놓았다. 공해에 대한 시민의식이라고 할 것이 거의 없었으므로 공해 생산은 일상천리식으로 급히 늘었다.

그럼에도 공해문제는 그것이 지닌 전문성으로 하여 전문가의 연구실에서 “분석중”이거나 공장의 튼니바퀴 틈에서 “생산중”이거나, 아니면 행정관리의 책상 위에서 “결재중”이어서 손쓰기 조차 앞담한 형편이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전문영역에 멈춰 있는 환경문제를 보편화시켜야 하리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환경문제가 보통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이기도 함을 인식시키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인 반응과 행동을 얻어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환경오염을 단순히 대중 차원의 잇슈로 끌어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맞부딪친 공해의 다급한 실상과 그것이 부를 참담한 비극을 전문가의 실험실이나 관리의 서류상자나 기업의 창고 안에 유폐시키거나 방치해 둘 일이 아니었다. 어떻게 든 제동을 걸고 감시하지 않으면, 오염화 현상은 더욱 무섭게 속도가 붙고, 더욱 다양화되고, 깊어지고, 광역화되는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을 막을 길이 없는 형세였다.

이렇게 하여, 칠십년대의 이 땅에는 마침내 “반공해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낯선 광대들이 벌이는 해프닝의 한토막쯤으로 비쳤을지 모를 일이었다. 실지로, 이 집단 행동을 어떤 정치적 틀을 거부하는 불운둥이라고 치우쳐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다. 또, 모처럼 제길을 기운차게 달려가는 황홀한 경제성장에 찬물을 끼얹는 이적행위라고 꾸짖는 일부의 소리도 있었다.

어쨌든, 뜻을 같이 하는 몇 분들과 함께 나는 공해추방시민운동에 손을 댔다. 지면이 허락되

는 대로 대중에게 우리의 환경에서 문제되는 것들을 호소하였다.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정신차리도록 경고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였다. 최초의 전국토 정화운동도 폈다. 자동차 배기가스 추방운동도 벌였다. 공해 진상 사진 전시회, 공해 추방을 다짐하는 가두서명운동도 가졌다.

어떤 형태로든 나는 보통 사람들이 알아 들도록 환경문제를 계몽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병든 환경을 고쳐볼 방법을 부지런히 제시하였다. 환경은 본디의 좋은 자연으로 회복 되어야 했다. 그것만이 인간의 삶을 다시 풍요롭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공해의 주검 위에 누워 편안히 잠자는 사람들과 더불어 잠을 잘 수는 없었다. 그가 누구이든 깨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보전의 당위성이 보통 사람들의 일상문제이기도 함이 실감날 만큼 부각 되는 기미가 엿보이기 시작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신문-잡지 등의 편집자들이 이 바닥의 환경문제의 심각함을 건성으로 보아 넘기지 않았음은 고마운 일이었다.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그나마도 공해에 대한 공동인식을 얼마쯤 갖게 되었다면, 그 공로는 전적으로 그들 저널리스트에게 돌려야 한다.

환경오염은 사람이 저지른, 자연에 대한 폭력이자 죄악이다. 그러므로, 그결과에 대해 속죄하고 환경을 본디의 좋은 모습으로 되살릴 책임도 마땅히 사람이 맡아야 할 몫이다. 그러자면 먼저 우리의 환경의식부터 철저히 개조해야 한다. 또, 국가의 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평범한 사람들의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준거가 될 잣대가 있어야 하며, 그 잣대에 따른 평가가 외상 없이 실천되어야 한다. 나는 그 잣대를 슈마허에게서 발견하였다.

“Small is beautiful.” (작은 것이 아름답다.)—이 한 마디가 곧 우리의 환경에 대한 재발견이자 진실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좀 살 재미가 있는 환경이 되도록 짝을 티워볼 수 있을 것이다.